

“한국 수출, 내년 회복 국면 진입”

최근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인 한국 수출이 내년부터는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2017년 수출 이슈 점검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올해 1~10월 기준 한국의 수출액은 약 4050억 달러로 전년 대비 8.0%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역대 최초로 수출이 2년 연속 감소한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 한국의 수출 규모도 세계 6위에서 8위로 하락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핵심적인 수출 이슈로 5가지를 꼽으며 이와 연계한 한국 수출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 '기회요인'이 되는 수출 이슈는 ▲신흥국으로의 성장 무게 중심 이동 ▲원화 약세 가

현대경제연, “신흥국 성장·원화 약세 등 기회요인”

보호무역주의 강화·트럼프노믹스 확대 등은 위협요인

“무역 분쟁 대응책·인도 등 신흥국 공략 방안 마련해야”

농성 ▲글로벌 인플레이션의 귀환 등 3가지다.

올해 1~10월 기준 한국의 수출 비중은 신흥국 57.5%, 선진국 42.5%로 신흥국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다.

내년에는 세계 경제의 무게 중심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한국의 수출 회복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172.6원으로 9월 이후 꾸준히 오르고 있다.

향후에도 미국의 내수 부양책과 금리 정상화 기조 등으로 인해 달러 강

세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 경기부양 의지, 중국 공급과잉 완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내년에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기대되고 있다. 수출단가가 함께 오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는 유리하다.

▲보호무역주의 강화 ▲트럼프노믹스 확산 등은 수출 '위협요인'에 속한다.

글로벌 통상 환경이 보호무역주의·신고립주의 중심으로 재편되며 미국과 중국간 기싸움이 시작됐다.

향후 양국의 통상마찰이 심화되면

중국을 통한 우회 수출 물량이 많은 한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트럼프노믹스가 확산되면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표류 및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력 등도 거세질 수 있다.

백다미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원은 “향후 통상 마찰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정부 차원에서 무역 분쟁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을 지속적으로 견인할 장기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는 선진국의 정치·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반면 원자재 가격 안정 등으로 신흥국 경제는 그동안의 부진한 모습을 넘어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신흥국 중에서도 인도, 베트남, 이란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규 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1



‘아이오닉 HEV’ 미국서 연비 1위 달성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차종에서... 도요타 프리우스 제쳐

현대자동차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내연기관 및 하이브리드 차종 가운데 연비 1위를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따르면 연비 모델인 현대차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블루(이하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는 15인치 타이어 기준 복합 연비 58MPG를 기록했다. 고속 연비는 59MPG, 도심 연비는 57MPG로 인정받았다.

이는 도요타 신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에코 모델의 복합 연비 56MPG보다 2MPG 높은 수치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 미국 시장 연비 1위였던 신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를 누르고 국산 아이오닉이 최고 연비를 공식적으로 인

정받았다”며 “현대차 아이오닉이 친환경차 중주국인 일본과 대표 업체 도요타를 연비 기술력에서 뛰어넘은 셈이다”라고 밝혔다.

현대차 아이오닉은 올해 1월 국내에서 복합 22.4km/1로 최고 연비를 기록해 복합 21.9km/1인 4세대 프리우스를 넘어선 바 있다.

또 지난 10월 유럽 자동차 전문지인 아우토티브가 실시한 아이오닉과 프리우스의 비교 평가에서 아이오닉은 정지 상태에서 100km/h에 도달하는 시간이 10.4초로 나타나 도요타 4세대 프리우스(10.8초)를 앞섰다.

현대차는 내년 초 미국 시장에 아이오닉 하이브리드를 출시하고 본격적으로 미국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이다. /뉴스1

1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 16% 감소

1만9361대로 전년대비 15.8%·10월보다 6.1% 줄어... 폭스바겐은 0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지난 11월 수입차 신규 등록 대수가 1만9361대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전년 동월(2만2991대) 대비해서는 15.8% 줄었고, 전달인 10월보다는 등록 대수가 6.1% 감소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누적 수입차 신규등록 대수는 20만 5162대로 전년 동기(21만9534대) 대비 6.5% 감소했다.

지난달 브랜드별 등록 대수는 메르세데스-벤츠 5724대, BMW 5340대, 렉서스 1167대, 토요타 870대 순으로 나

타났다.

지난 8월 정부로부터 인증취소·판매금지 처분을 받은 폭스바겐은 판매 가능했던 ‘투아렉’과 ‘CC’ 기술된 모델의 재고가 떨어지면서 지난달 판매량이 없었다는 이유로 나타났다.

아우디도 판매량이 전년 동월 대비 88% 감소한 463대에 그쳤다.

국가별로는 유럽 1만4453대(74.7%), 일본 3325대(17.2%), 미국 1583대(8.2%) 순으로 나타났다.

연료별로는 디젤 1만352대(53.5%), 가솔린 7023대(36.3%), 하이브리드

1,858대(9.6%), 전기 128대(0.7%) 순이었다.

디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고, 가솔린과 하이브리드는 각각 판매량이 15.3%, 69.9% 늘었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메르세데스-벤츠 E 220d가 1330대로 1위를 차지했고 BMW 520d(1143대), BMW 520d xDrive(798대)가 뒤를 이었다.

운대성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전문부는 “11월 수입차 시장은 일부 브랜드의 물량 부족으로 전월 대비 감소했다”고 밝혔다. /뉴스1

“변액보험 장단점 확인하세요”

금융원 ‘알기 쉬운 변액보험’ 발간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공동으로 ‘알기 쉬운 변액보험’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으로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모집수수료 등을 뺀 자금을 펀드에 투자하기 때문에 수익률과 사업비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진다.

상품 구조가 복잡한데다 투자 수익률에 따라 받는 보험금이 달라지는 등 관리가 어려운데 판매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투자손실 등)에 대한 안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원과 협회는 변액보험 주요 내용

을 가입 전·후로 구분해 각 주제별로 상품특징과 유의사항을 수록했다.

조기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매우 낮을 수 있다는 점과 해지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인 원금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저축성보험 기준으로 통상 7~10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 등을 안내한다.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지만 10년 이상 유지하면 총 부과된 사업비가 펀드 등 여타 금융상품의 수수료보다 적어질 수 있어 수익확보에 유리할 수 있

고, 세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또 운용형태, 투자리스크, 보장가능 측면에서 일반펀드와 변액보험을 비교 설명하고 변액보험의 수익률 확인과 펀드 선택 방법을 알린다.

책자는 이날 중 전국의 보험회사 및 은행(방카슈랑스)의 영업창구,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등에 배포된다.

금융원 홈페이지와 블로그, 페이스북을 비롯해 각 생명보험회사, 생명보험협회, 보험다모아 사이트 등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뉴스1

LG 트롬 스타일러, 국제 친환경 경쟁력 ‘인증’

탄소·물 발자국 검증 획득

LG전자의 의무관리기 LG 트롬 스타일러가 ‘탄소 발자국’ 검증과 ‘물 발자국’ 검증을 동시에 받으며 친환경 경쟁력을 인정받았다고 6일 밝혔다.

스타일러는 최근 영국의 인증기관인 영국표준협회(BSI : British Standards Institute)로부터 2개의 검증을 동시에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검증은 국제심사기준(각각 PAS 2050, ISO 14046)을 따라 평가됐다.

‘탄소 발자국’ 검증은 생산·유통·사용·폐기 등에 이르는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제품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이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다. ‘물 발자국’ 검증도 마찬가지로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의 총량을 확인한 후 제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뉴스1

LG 트롬 스타일러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고객들의 건강을 고려하고 에너지 사용량도 줄였다는 설명이다. 자연환경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쓰지 않고 옷을 흔들어 주는 무빙헨저(Moving Hanger)와 물로 만든 트루스팀(TrueSteam™)을 이용해 옷의 생활구김을 줄여주고 냄새를 없애준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인버터 컴프레서가 사용됐다.

한편 퓨리케어 슬림 정수기도 탄소 발자국 검증과 물 발자국 검증을 받았다. 이 제품은 직수 방식을 채택해 저수조가 있는 정수기에 비해 위생적이다. 고효율 인버터 컴프레서를 탑재해 필요에 따라 냉각 능력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전기 사용량을 낮췄다.

김영수 LG전자 어플라이언스연구소장은 “LG만의 친환경 기술을 앞세워 고객의 건강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까지 고려하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뉴스1

포브스 “갤노트7 배터리 결함은 제품 설계 문제”

포브스는 5일 ‘인스트루멘탈이 라는 업체의 엔지니어들이 갤럭시 노트7 제품을 분해해 분석한 결과 배터리 결함은 ‘제품 설계의 근본적 문제’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인스트루멘탈은 “갤노트7의 발화 결함은 제품 설계의 근본적 문제에서 비롯됐다”며 “삼성은 공격적으로 설계한 갤럭시 노트7의 내부 디자인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았지만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열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갤노트7 내부는 배터리와 다른 부품 사이의 공간이 너무 좁아 배터리가 계속 눌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배터리가 압력을 받으면 양극과 음극 분리막이 손상되고 양극과 음극이 접촉하면 지속적으로 열이 발생해 나중에는 발화로 이어진다”고 분석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삼성전자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삼성이 애플의 아이폰7을 꺾기 위해 갤럭시7 생산을 너무 서두르는 등 과외, 혁신 등 모든 분야에서 공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전했다. /뉴스1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사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검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